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궤도'

2024년까지 142억 투입 전통시장 관광거점 활용

특화거리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마중물 기대

해남군이 침체된 원도심의 중심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해남읍 고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142억을 투입한다.

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군은 '시장·길·천이 아름다운 해남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샾터 해남' 비전으로 해남읍 5

일시장과 매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창업·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군은 10월부터는 5일시장과 매일시장을 연계하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남동리 일원 골목길을 개선하는 '안심 고살길'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에 돌입한다.

고도리를 중심으로 해남읍 중앙2로 거리와 천변길은 해남 대표 전통시장인 5

일시장과 매일시장을 잇는 도로들로 전년형층이 이용하는 많은 통행량에 비해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낙후돼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군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설계를 진행할 방침으로 모든 연령층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무장애, 보행자 우선도로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

이다.

또한 해남읍 오일시장과 남동리 인근 580m는 안심 고살길로 조성할 계획으로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과 밝은 이미지의 견고 싶은 골목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남동리 일원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남동리 일원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지만 노년층 주거 비율이 높아 자가 정비를

통한 집수리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군은 도시재생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2가구를 선정, 가구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부담 정비,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등을 실시했다. 또한 외벽·담장 도색으로 주거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 개선을 체험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낙후된 읍 시가지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 백운동 원림이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 백운동 원림은 가족, 연인 등 관광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백운동 원림 '안심 관광지' 각광

조선 선비 은거문화 알려주는 호남 3대 정림

강진군은 5일 "강진 백운동 원림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가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진 백운동 원림은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세연정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정림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선 선비들의 은거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조선 중기의 처사 이담로(1627-1701)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白雲洞)'이라 새기고 조영(造營)한 원림으

로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된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며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이후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12년 이곳을 다녀간 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제자 초의선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고, 백운동 원림의 12승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겼는데 이를 근거로 유서 깊은 전통별서의 모습을 재현했다.

또한 백운동 원림 인근에는 월출산 밀

으로 넓게 펼쳐진 33.3ha에 이르는 강진 다원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천년고찰 무위사 등이 인접해 있어 가족과 연인이 함께 방문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은 백운동 원림과 더불어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초당 등 관광지와 한정식, 회춘탕, 전어요리와 같은 맛도 즐길 수 있는 남도 답사 1번지"라며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무안군,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무안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악·오룡 신도시에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올해까지 공영자전거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

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정을 중심으로 대여소 10여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보험도 별도 가입할 것"이라며 "이용객 중심의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도 힘써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최효승기자

영암, 임시선별검사소 이달말까지 연장 운영

행복소통버스 투입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제 PCR 검사

영암군이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고흥 방류 전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PCR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해 연휴 전후 2주간 7천364명(외국인 2천22명)의 검사를 진행했다.

<사진>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많은 영암군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민 행복소통버스를 투입, 현장 내 찾아가는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영암군 대불산단 A공장 759명(외국인 398명), 9월 29일

엔 B공장 784명(외국인 363명)을 검사했다.

도민 행복소통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영암=이병영기자

목포시문학회, 문학박람회 선상시낭송회

내일부터 10일까지 관광객·문학인 대상

목포시문학회가 목포문학박람회 기간인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문학인을 대상으로 선상시낭송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상시낭송회는 7-9일은 오후 7시, 10일엔 오후 4시 삼학도 크루즈선(목포항 유람선 내)에서 개최된다.

선상시낭송회는 목포항 유람선(삼학도 크루즈선)에서 주로 야간을 이용해 목포항과 목포대교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도 즉석에서 목포시가 알기 귀zna 시낭송을 할 수 있다.

특히 귀zna 시낭송인, '목포항' 삼행시의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집 2권 씩을 증정할 예정이다.

유람선 승선은 할인 요금 1만원으로 승선인 본인 부담이며 예약 접수는 유람선사(061-245-3222)로 하면 된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시 제4기 시민소통위원회 모집

3개 분과 30명 20일까지 접수

나주시는 5일 "민관 소통의 열린 창구인 '제4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3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전달하는 민·관 고교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 신청은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또는 관내 소재 기관·직장 근무자 누구나 가능하다.

단, 나주시 관할 위원회 7개 이상 위촉 받은 자, 시민소통위원 연임자, 지방체 체납자, 현 이·통장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총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lyw67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4기 소통위원회는 행복한 나주, 건강한 나주, 잘사는 나주 등 3개 분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나주=정준환기자

명품 '신안배' 올해 첫 美수출길

신안군이 최근 2021년산 신안배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선적을 했다.

신안배는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다.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첫 선적된 물량은 13t이다. 올해는 550t, 15억원 상당을 수

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명품 신안배는 1999년부터 미국 LA 및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출해왔다.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는데 성공해 매년 200-600t을 수출하는 등 배 생산농가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